



여론조사

##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박 태 일 / 현대경제연구원 컨설팅본부장

금강산관광이라는 형태를 통해 남북간 대규모 민간 교류가 시작된 지 지난 11월 18일로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12월 1일부터는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개성공단마저 순조로운 가동이 위협받는 등 남북 관계 경색이 중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 시절 북·미간 직접 대화를 시사했던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이 점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관계에 심도있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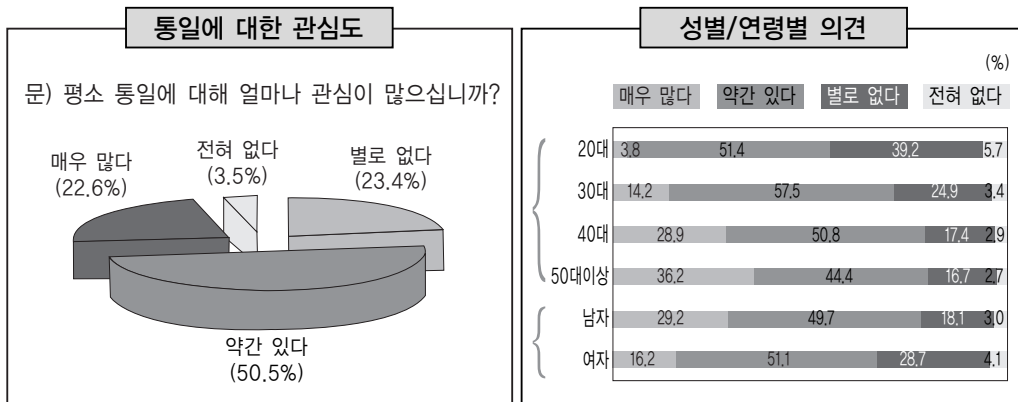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남북 현안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이다.

## 통일관

###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관심 있다(매우+약간)’는 응답이 73.1%로서 ‘관심 없다(별로+전혀)’ (26.9%)의 약 3배에 달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는데, 특히 20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관심 있다’는 비율은 20대 이하(55.2%), 30대(71.7%), 40대(79.7%), 50대 이상(80.6%)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67.3%)보다는 남자(78.9%)의 관심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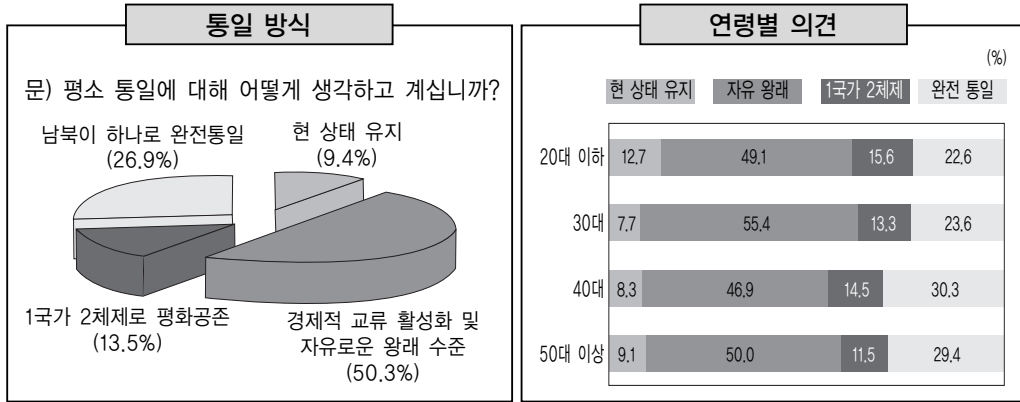
### 통일 방식

‘통일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지금보다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 (50.3%)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완전 통일’을 원하는 의견은 26.9%에 불과했고, ‘1국가 2체제로 평화 공존’은 13.5%였다. ‘현 상태 유지’가 좋다는 의견도 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현 상태 유지’ (12.7%), 30대는 ‘자유 왕래 수준’ (55.4%), 40대 및 50대 이상은 ‘완전 통일’ (각각 30.3%, 29.4%)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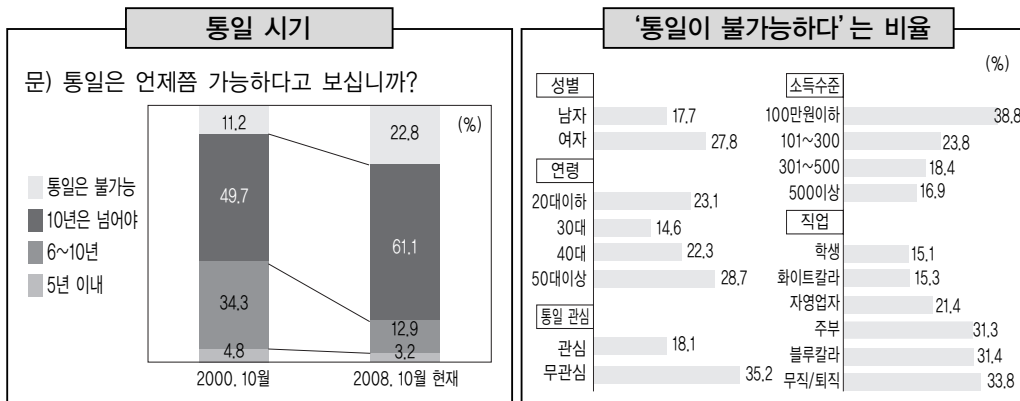
## 여론조사



## 통일 시기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인 입장이 많았다.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10년은 넘어야' (61.1%) 또는 '아예 불가능' (22.8%)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5년 이내' (3.2%)와 '6~10년' (12.9%)이라는 의견은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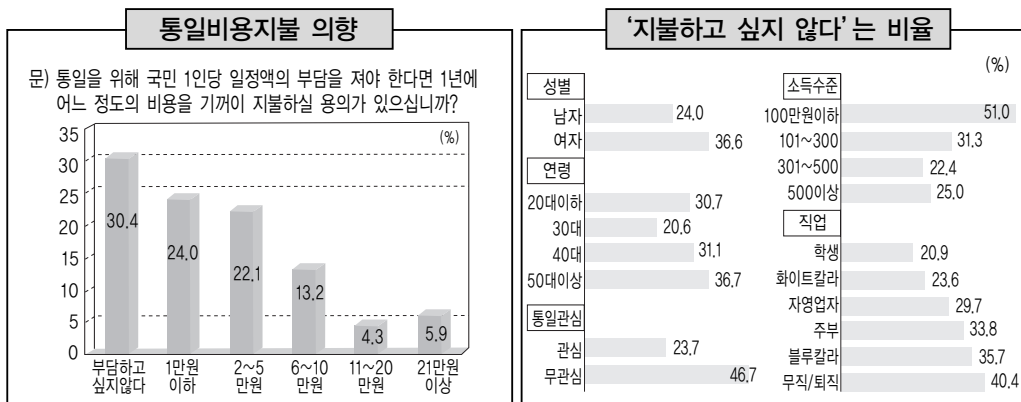
이 결과는 지난 6.15 공동선언의 분위기가 이어졌던 2000년 10월 조사와 비교할 때 우리 국민의 통일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통일은 불가능' (11.2%→22.8%), '10년은 넘어야 할 것' (49.7%→61.1%) 등 통일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상당히 높아진 반면, '5년 이내' (4.8%→3.2%), '6~10년' (34.3%→12.9%) 등의 의견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남자(17.7%)보다는 여자(27.8%)가 많았으며, 50대 이상 고연령층(28.7%)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퇴직(33.8%), 블루칼라(31.4%), 주부(31.3%) 등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 통일 비용 지불 의향

하지만 통일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해 국민 1인당 일정액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실 용의가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부담하지 않겠다’ (30.4%)와 부담해도 ‘연 1만 원 이하’ (24.0%)로 하겠다는 의견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비용 분담은 부담스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 ‘2~5만원 이하’ 22.1%, ‘6~10만 원’ 13.2%, ‘11~20만 원’ 4.3%, ‘21만 원 이상’ 5.9% 등으로 나타났다.



## 남북 관계 주요 현안

###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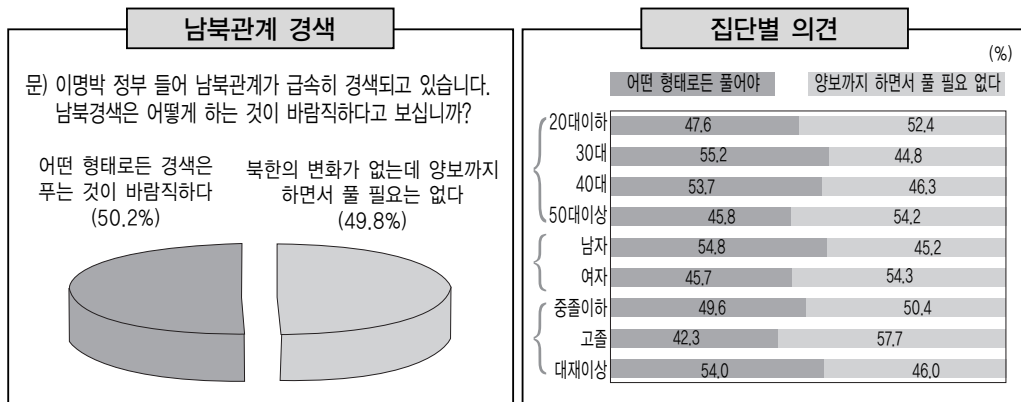
강온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경색은 푸는 것이 바람직하



## 여론조사

다’ (50.2%)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양보까지 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 (49.8%)는 두 의견이 반반을 차지했다. ‘북한을 신뢰한다’는 입장은 24.3%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경색은 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0.2%나 되는 것은,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경색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형태로든 경색은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자(45.7%)보다는 남자(54.8%)가 많았으며, 30대(55.2%), 40대(53.7%)의 해결 의견이 높았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54.0%)과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5.8%), 자영업자(54.3%), 학생(53.5%) 등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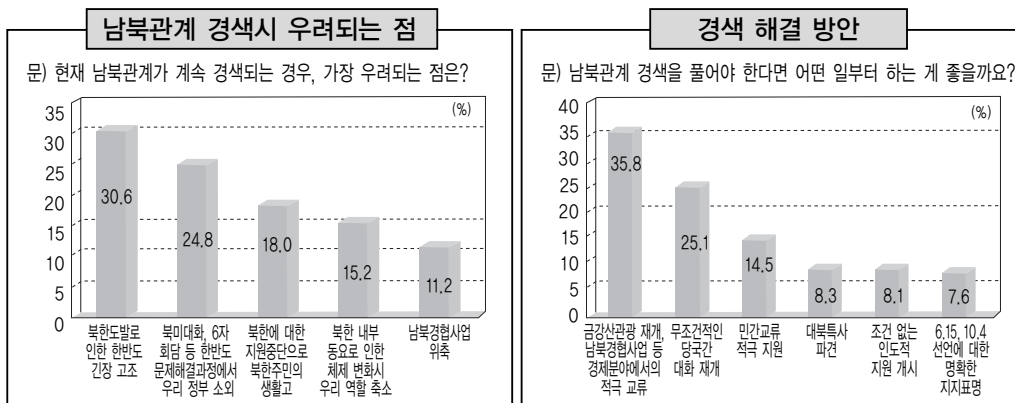
### 남북 관계 경색시 우려 사항과 그 해법

“현재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북한 도발(전쟁, 무력 시위 등) 등 한반도 긴장 고조’ (3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북미 대화,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소외’ (24.8%),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 (18.0%), ‘북한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 (15.2%), ‘남북경협 사업 위축’ (11.2%) 등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미 대화, 6자회담 등에서의 우리 정부의 소외’ (24.8%), ‘북

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 (15.2%) 등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 관계 경색의 해결 방안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경험 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 교류' (35.8%)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무조건적인 당국간 대화 재개' (25.1%), '민간 교류 적극 지원' (14.5%), '대북 특사 파견' (8.3%),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개시' (8.1%), '6·15,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 (7.6%) 등의 순이었다.



### 인도적 지원 방식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더라도 북한의 변화와 연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68.6%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도적 지원이므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1.3%였고, '지원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10.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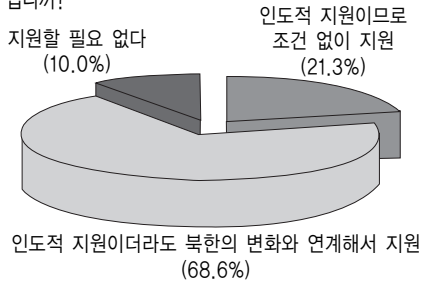
'인도적 지원이므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자(25.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8.5%), 40대(28.5%)의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8.6%), 화이트칼라(25.8%) 등의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25.7%)가 비교적 높았다.



## 여론조사

### 인도적 지원 방식

문) 식량 및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단별 의견

집단	집단별 의견 (%)		
	조건 없는 지원	북한 변화 연계	지원할 필요없다
20대이하	14.6	75.9	9.4
30대	26.6	67.8	5.6
40대	28.5	63.2	8.3
50대이상	16.7	68.5	14.8
남자	25.4	63.8	10.7
여자	17.3	73.3	9.3
중졸이하	14.5	68.4	17.1
고졸	13.9	73.8	12.4
대재이상	25.7	66.8	7.5

## 남북 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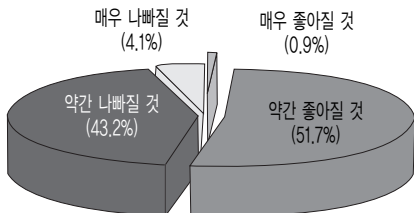
### 남북 관계 전망

내년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약간 우세했다. 낙관론은 '매우 좋아질 것' (0.9%) '약간 좋아질 것' (51.7%)을 합쳐 52.6%였고, 비관론은 '약간 나빠질 것' (43.2%), '매우 나빠질 것' (4.1%)을 합쳐 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인 전망은 남자(56.7%)가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고연령층(55.4%)이 낙관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편,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65.3%) 및 블루칼라(64.2%), 무직·퇴직(62.3%), 자영업자(56.0%) 등의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

문) 내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낙관적 기대 비율

성별	낙관적 기대 비율 (%)	
	성별	소득수준
남자	56.7	100만원이하 65.3
여자	48.6	101~300 49.0
		301~500 57.0
		500이상 47.7
		직업
20대이하	49.3	블루칼라 64.2
30대	52.2	무직/퇴직 62.3
40대	52.3	자영업자 56.0
50대이상	55.4	화이트칼라 51.7
		학생 50.6
		주부 48.4

### 대북 신뢰도

대북 신뢰도는 지난 200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24.3%로서, ‘신뢰할 수 없다’ (75.7%)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신뢰도 24.3%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의 대북 신뢰도(52.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대북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은 남자(31.2%)와 30대(32.3%)와 20대(27.4%)이며, 광주·전라(34.3%) 지역과 학생(33.7%)과 화이트칼라(32.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북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집단은 여자(17.6%)와 50대 이상(14.8%)이며, 부산·경남(19.4%), 서울(19.5%), 대구·경북(20.4%) 지역 등이며, 주부(12.7%)와 블루칼라(14.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統**

